

정녕코 이루었다

본 문 이사야 46장 11절

『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
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
정녕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녕 행하리라』

1. <정녕코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>에 들어가야 ‘유익’이며 ‘축복’이다.
2. 하나님은 <사람을 창조하신 목적,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>을 정녕코 행하신다.
3. 하나님은 <사랑의 뜻>은 정녕코 행하고자 마신다. 고로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된다. <하나님의 계획>과 <하나님의 뜻>에서 벗어난 사랑은 이뤄지지 않는다.
4. <성경>을 풀 때는 연관시켜 풀어야 된다. 이사야 46장 11절 말씀도 그 구절만 보면 풀어지지 않는다.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면,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“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 백성을 이끌어 냈다.” 했다. 고로 <독수

리>는 ‘모락을 이룰 자’ 라는 것을 연관시켜 깨닫게 된다.

5. <육적인 자, 자기 중심하는 자>는 성경을 풀 때 연관을 시키지 않고, 한 군데만 가지고 푼다. 이는 자기 생각, 자기 주관이며 자기 합리화로 푸는 것이다.

6. <전체>가 맞아야 ‘진리’ 다. <진리>는 모순이 없다. <모순>이 생기면, 그때부터 연관이 안 된다.

7. <하나님의 비유>는 더 이상 없는 극적인 비유로서, ‘만물’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.

8. 성경에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‘비유’로 되어 있다.

9. <독수리>는 곧 ‘메시아’ 다. <동방>은 지리적으로 볼 때 ‘아시아 지역’이 동방이다. <정녕코 이룬다는 말씀>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를 것을 이루며 역사를 펴 오신다는 말씀이다. 고로 이사야 46장 11절 말씀은 “내가 보낸 메시아를 통해 이루는 일은 시대가 뒤집어져도 정녕코 이룬다.” 함이다.

10. <시대 보낸 자>는 ‘하나님의 창조 목적, 사랑의 뜻’을 이룬다. <사랑의 뜻>이란, 육도 땅에서 휴거를 이뤄 삼위와 사랑하며 살고, 그 영은 정한 날 성자와 함께 황금 천국으로 휴거되어 영원히 삼위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. 곧, 지상에서도 휴거 역사를 이루고, 근본으로는 신부의 영으로 변화된 자들을 황금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휴거를 이룬다는 것이다. - 이것이 하나

님께서 원하시는 최고 목적, 창조 목적이다.

11.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>는 ‘사랑덩이’ 이시다.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신다. 다만 그 사랑을 받으려면, 그만큼 하늘 앞에 조건을 세워야 된다.
12. <마지막 역사>에는 반드시 “이루었다.” 라는 말을 해야 된다.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시기까지 6000년이 걸렸다.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역사에 ‘모락을 이룰 사람’ 을 보내시어 정녕코 뜻을 이루고야 마셨다.
13. <행한 것, 이룬 것>만 ‘절대성’ 이 된다. <안 한 것>은 ‘미결’ 이다.
14. <마지막 역사>를 만나 그 말씀을 듣고, 깨닫고, 행하고, 이룬 것이 ‘기적’ 이요, ‘다시는 없는 표적 중의 최고의 표적’ 이다.
15. <메시아가 온 것>이 ‘표적’ 이다. <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온 것>이 ‘표적’ 이요, ‘기적’ 이다.
16.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, “내가 말한 뜻을 이뤘다!” 하셨다. <하나님의 뜻>을 이뤘으니, 이제는 ‘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뜻’ 을 이뤄야 된다.
17. 들어가도 축복, 나와도 축복이다.

18. <시대 말씀>이 ‘축복’이다.

19.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, “<할 때>는 반드시 ‘때’에 맞춰 해야 된다. <때>가 지나간 다음에 하면 안 된다.” 하셨다.

20. 하나님은 ‘시대 보낸 자’로 정녕코 이루셨다.

21. 주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땅에 떨어져서 끝나지 않는다. 빗방울이 떨어져 땅을 적시듯, 바위를 적시듯 정녕코 하고야 만다.

22. <정녕코 이룬다> 하신 말씀을 늘 자기 생활 속에서도 이뤄야 된다. 늘 삶 속에서 ‘성령’을 부르고, ‘주’를 부르면서 하는 것이다.

23. <불가능 한 것을 행할 때> 하나님과 성령님은 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.

24.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서 함께 해 주시면 100% 된다. 고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.

(노래) 정녕코 이루었다

사랑하여서 사랑하였네

좋아하여서 좋아하였네

하늘의 뜻이라면

내 기어이 행하리라
오 하나님
긴긴 유구한 역사를 두고
이루어 오신 것인데
이때에 날 불러서
목적을 주셨는데
그 누가 하려나
내가 하고야 말았네
6000년 한도 많고
사연도 많은 역사였네
정녕코 행하리라
말씀하신 그 말씀을
나도 정녕코 행하였네